



국군수도병원

군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군병원. 이런 국군병원을 대표하는 군 최고의 진료 기관이 바로 국군수도병원이다.

연혁



국군수도병원은 1950년에 부산에서 창설되어 서울 종로, 등촌동을 거쳐 1999년에 현재 위치인 경기도 성남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, 군 병원으로서의 최대 규모인 1000병상과 120명의 의료진을 갖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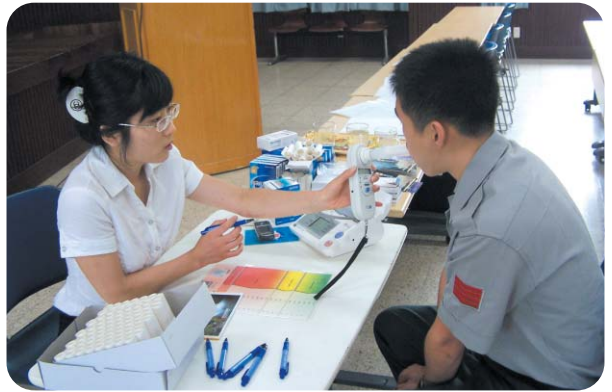
병원의 임무와 역할



병원은 치과를 포함한 전 의료분야에서 국군 장병과 예비역 장병들의 진료 및 입원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, 군의관 등 군 의료 인력에 대한 전문화 교육(정신간호, 중환자, 물리치료, 수술, 마취 등)과 군전공의(인턴, 레지던트)수련을 담당하기도 한다. 또한, 군 관련 각종 선발시험의 신체검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.



☒ 병원의 금연노력



병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병원 금연운동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. 가정의학과에 금연클리닉을 개설하여 군의관에 의한 금연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,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전문 금연강사에 의한 금연교육, 일산화탄소 수치 측량 등 지속적인 금연관리를 실시하고 있다. 또한,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원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, 운영하고 있다.

☒ 병원의 의료장비 및 환경



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RI, 혈관조영촬영 장치 등 최첨단 진단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, 수술, 간호, 각종 검사기록 및 입·퇴원 등의 행정 절차를 전산화 한 국방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. 또한,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150여 명의 자문관을 위촉하여 각종 수술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.

☒ 병원의 복지

입원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진료시설 이외에도 입원 환자들의 간병인을 위한 간병인 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실내체육관, 적십자 봉사실 등의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외부 공연단 초청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.

☒ 병원의 대국민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

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아프간 석방자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관련해서 일부 매체에서 군 장병이 아닌 민간인이 입원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가 되었지만, 사실 국군수도병원은 국가와 군의 위기사항에서는 항상 국민과 함께 했다.

2000년 6월과 8월, 두 차례에 걸친 의료계 집단폐업때 병원은 비상 진료체제로 전환, 수많은 국민들을 진료 하였으며,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태세를 유지하고 있다. 또한 재난재해 발생 시 대민의료지원도 전개하고 있다.

☒ 의료기관 평가 수검

병원은 올해 군병원 최초로 의료기관 평가를 받는다. 외부 민간병원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의료기관 평가는, 미흡한 부분의 확인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정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.

국군수도병원장 박호선 대령은 "앞으로도 끊임없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해 장병과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인간중심의 병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"라고 말했다. 🌈